

# “공공철학 형성이 매스미디어의 의무”

## 매스컴 연구서 두권 동시에 펴낸 이강수 교수

40여년 전에 우리민족이 치루었던 6·25 전쟁의 전황을 낚은 단파 라디오를 통해 들었던 경험을 지닌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최근 이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프전쟁의 전황을 시시각각 우리의 TV, 라디오,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해 접하면서 격세지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시·공간적 장벽을 뛰어넘어 ‘지구촌’을 형성한 매스커뮤니케이션이 지닌 위력에 대한 놀라움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진위를 물을 틈도 없이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정보가 자신의 의견으로 ‘의식화’되어버리는 매스커뮤니케이션 앞에서의 무력감을 동반하는 것이다.

매스컴의 발전이 가지는 위력과 동시에 제기되는 허구에 대한 의문은 결국 매스미디어 존재의 당위성과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로 연결된다.

### 미국 및 유럽의 이론체계 두루 포괄

최근 이강수 교수(57. 한양대 신문방송학)가 동시에 펴낸 「현대 매스커뮤니케이션 이론」(나남)과 「현대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제문제」(범우사)는 이러한 매스미디어 존재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이론과 실제 양 측면에서 검토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현대 매스커뮤니케이션 이론」은 매스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고전적 이론으로부터 최근의 발전된 이론에 이르기까지 각종 이론과 접근방법을 소개하고 조망한 이론서.

“매스커뮤니케이션 연구는 그것이 지니는 특수성 때문에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접근방법이나 단일한 이론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학, 심리학, 경제학 등 여러 인접 학문들의 접근방법과 각각 별개의 학문적 오리엔테이션을 통하여 연구되고 집적되고 체계화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의를 하면서 이러한 다양한 접근방법과 이론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교재의 필요성을 절감했는데 외국 이론서 이외에는 마땅한 교과서를 찾기가 힘들더군요.”

2년 가량의 준비기간을 거쳐 출간된 이 책은 특히 지금까지 발전된 매스커뮤니케이션 이론의 기본적 틀을 주축으로 하여 미국 중심의 이론적 체계와 유럽중심의 이론적 체계를 포괄적으로 수용하려 한 데 특색이 있다.

그에 따르면, 미국 중심의 매스커뮤니케이션 이론은 미시적, 기능주의적, 실증주의적이며 계량적인 접근방법을, 유럽중심의 이론은 거시

적, 이데올로기적, 철학적이며 논리적인 접근방법을 그 특색으로 한다. 즉 미국 중심의 이론이 수용자를 조작, 설득의 대상으로 그 효과 연구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라면 유럽중심의 이론은 매스미디어를 계급체계와 생산의 일반 측면과 관련하여 그것의 이데올로기적이고 문화적인 역할관계를 규정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 나와 있는 기존 텍스트들은 미국적 시각에 입각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매스커뮤니케이션이 아무리 객관성을 존중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규범이나 이데올로기의 규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측면을 염두에 둔다면, 효과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는 미국 중심의 이론은 비판할 여지가 많습니다. 또한 미국적 이론만으로는 우리나라 매스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이해하기는 불가능 합니다.”

매스커뮤니케이션 이론의 포괄적 수용을 통해 이론적 세계의 지평을 넓히고자 한 그의 학문적 관심은 그러나 다시 하나로 모아진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매스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설명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이러한 학문적 관심의 구체적인 결과물이 「현대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제문제」이다. 이 책은 모두 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신문 및 방송제도에 대한 검토와 비판과 함께 정부와 언론의 문제, 세계경제체제와 정보의 문제, 커뮤니케이션과 정보화 사회에 대한 인식의 문제, 그리고 TV가 청소년과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등 매스커뮤니케이션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을 날카롭게 분석, 통찰하고 있다.

특히, 1·3장에서 고찰하고 있는 우리나라 신문과 방송제도는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와 외국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각종 문제점들을 논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을 끈다.

그가 제기하고 있는 우리나라 신문의 문제는 세가지 차원에서 연원한다. 정치, 경제, 신문기업 내적인 차원 등이 그것이다. 그는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신문이 지니는 구조적 특성을, 정치적 통제에 대해 스스로 문을 닫아 본 저항의 역사가 없으며, 도덕성·공공성과 경제적 이익이 상충할 경우 후자를 택해 온 역사가 규정되었다고 본다.

“민중사회 신문의 이념형은 ‘자유롭고 책임 있는 신문’입니다. 우리나라 신문이 이러한 신

**‘인간중심의 매스커뮤니케이션’은 인간을 피동적 조작 대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주체로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매스미디어들이 자유롭고 책임있는, 이성적 민주주의의 실현과 문화발전의 장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때 그 존재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이강수 교수

문이 되기 위해서는, ‘정기간행물등록법’ ‘국가보안법’ 등의 폐지는 물론이고 ‘정부출입처기자단’을 해체해야 합니다. 또한 재벌 기업의 신문기업 침투와 신문기업간의 카르텔 형성을 방지해야 합니다.”

그가 우리 신문의 이념형 창출을 위해 제시하는 대안은 그 수위가 사뭇 높고 어조 역시 강하다.

### ‘인간중심의 매스커뮤니케이션’ 강조

방송제도에 대한 생각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방송의 역할은 역사적 현실 속에 당면한 사회, 문화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이념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방송은 철저히 공적인 영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취해왔던 공영방송 제도는 권위주의적인 정치체제에 예속되어 있는 권위주의적 공영방송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정부로부터 독립된 공공성의 획득과 시청자를 문화창출의 주체로 참여시키려는 인식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때문에 그는 최근의 상업방송이나 유선방송 도입에 대해서는 강한 반대입장을 가질 수 밖에 없고 얼마전에는 ‘상업방송 도입 반대 성명’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상업방송이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대중문화의 질적 저하’ 뿐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결국 두 권의 책을 통해 읽어낼 수 있는 그의 매스커뮤니케이션관은 ‘인간 중심의 매스커뮤니케이션’으로 요약된다. 이는 인간을 피동적 조작 대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주체로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매스미디어들이 자유롭고 책임있는, 이성적 민주주의의 실현과 문화발전의 장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때 그 존재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매스커뮤니케이션은 그것이 속한 사회체제나 성격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그것을 재구성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매스커뮤니케이션 연구는 현실문제를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지요.”

국민학교 5학년때 해방을 맞은 그가 거처온 우리 현대사의 굴절과 아픔들이 그에게는 어떤 형태의 흔적을 남겨주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 매스커뮤니케이션 연구를 통한 현실접근은 “지적 허무주의나 패배주의의 늪에서 헤어나오게 하는 유일한 동력”이라고 그는 고백한다.

우리나라 매스미디어들이 떠맡아야 할 과제를 ‘독자적인 우리문화 유지와 창조, 새로운 산업발전을 추진하고 뒷받침하는 정신구조와 공공철학의 형성’으로 역설하는 그는, 스스로의 몫이라고 여기는 ‘우리 매스커뮤니케이션 이론의 정립’을 위해 조여진 긴장을 풀지 않을 것이다.

—박남정 기자